

## 1920년대 초반의 신문불매운동 연구\*

채백\*\*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이 논문은 일제 초기 민간지를 대상으로 독자들이 집단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였던 두 개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일제기 언론사에서 벌어졌던 첫 번째 불매운동은 1922년 2월 윤양 김운식의 사회장 문제를 둘러싸고 반대 세력들이 『동아일보』에 대해서 펼쳤던 불매운동이다. 두 번째는 1923년 3월 전조선청년당대회에서 『동아일보』 불매운동을 결의했던 사례이다.

이 두 사례는 모두 1920년대 초 민족운동 진영 내에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보여 주었던 대립과 갈등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두 세력은 민족운동에 대한 기본 입장을 달리하면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여러 측면에서 경쟁과 대립 양상을 보여 주었다.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민족주의 진영을 대변하던 『동아일보』에 대해 불매운동을 결의하고 실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일제기 민간지 초기부터 수용자들이 신문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행동까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키워드: 수용자운동 신문불매운동 신문구독거부운동 수용자론 언론사 일제

---

### 1. 문제의 제기

이 논문은 일제 강점기 한국 언론에서 수용자 집단이 특정 신문을 대상으로 구독 거부운동을 벌였던 사례들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일제기 언론에서 수용자 집단이 신문 구독 거부운동을 벌였던 사례는 지금까지 학계에서 논

---

\*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연구(보조)비(4년과제)에 의한 연구임.

\*\* bchae@pusan.ac.kr

의된 적이 없다. 단지 통사적 서술이나 관련 연구에서 1924년 『동아일보』의 사설 ‘민족적 경륜’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불매운동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예컨대 정진석, 1990; 배진한, 1988; 채백, 1998 등). 해방 이후의 언론에서 신문 구독 거부운동이 다루어진 것도 김기태의 연구(1991; 1994)에서 1990년도의 스포츠신문 구독거부운동 사례가 분석된 정도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1920년 민간지의 창간이 허용되고 난 직후인 1920년대 초반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집단들이 언론의 보도 태도 등을 문제삼아 불매운동을 벌였던 사례들이 존재한다. 일제기에 발행된 대표적 잡지 『개벽』 1924년 1월호(37-38쪽)를 보면 ‘우리의 사상 혁명과 과학적 태도’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이 등장한다.

주의자(主義者)는 누가 자기네와 반대되는 의사를 소개할가바 겁을 내어 야단이다. 만일 신문이나 잡지에 이와가튼 언론이 게재된다면 그네들은 반드시 비매동맹을 하거나 또는 성토를 하여 무슨 ‘불공대천지경(不共戴天之警)’을 만난 것 처럼 큰 소동을 한다. 여기에 우리의 일반 비평가는 이런 미움을 면하기 위하여 할 말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언론 기관은 언저야 될 글도 언지 못하는 것 같다(밑줄은 인용자).

언론의 보도 내용이 자신들의 입장과 조금만 달라도 불매운동을 펼치는 등의 과도한 반응 때문에 언론이 위축될 지경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그만큼 당시 사회에서 신문에 대한 수용자들의 집단적 행동으로서 구독 거부가 많이 있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창기의 신문 불매운동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일제기 언론사의 초창기인 1920년대 초반 구독자 집단이 언론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사례들을 대상으로 그 전개 과정과 주체 세력, 배경 요인 등을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어떠한 집단들이 어떤 계기로 어떻게 불매운동을 벌였는가를 분석해 보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이다.

여기서 불매운동이라 함은 어떤 집단이 특정의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구

독을 거부한다는 내용, 당시의 용어로는 비매동맹(非買同盟)을 결의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경우를 말한다. 물론 불매운동이라고 하면 이러한 결의와 선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실행과 확산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 논문에서 이 측면에 대한 분석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자료 상의 문제이다. 비매동맹이 결의, 선언된 이후 어떻게 실행되었으며 그것이 신문의 발행 부수나 기타의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할 만큼의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sup>1)</sup>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득이 비매동맹이 결의되고 선언된 과정과 그 배경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1920년대 초반만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지면상의 제약 때문이다. 앞서 지적대로 일제기의 신문불매운동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 사례들을 하나의 논문에서 다 다루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1920년대 초반만을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그 이후의 사례들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일제 강점기 뿐만 아니라 전체 한국 언론의 역사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나 과거나 언론이란 수용자들에 의해 어떻게 받아 들여지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그 사회적 역할 및 역사적 의의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일제 초창기의 언론에서 수용자들이 언론에 대해서 취했던 구체적 행동들을 통해서 당시의 언론이 어떻게 인식되고 수용되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는 언론 수용자운동과 그 이론적 기초를 이루는 '적극적 수용자론'의 역사적 뿌리와 맥락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논의의 지평을 확대시키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1) 이러한 문제는 현대의 한국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발행부수를 비롯한 경영과 관련된 자료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예컨대 안티조선운동과 같은 현대의 신문불매운동을 분석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의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는 체계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현실이다.

## 2. 고 김윤식 사회장 반대회의 『동아일보』 불매운동

### 1) 불매운동의 전개

1920년 일제의 식민지 통치 정책의 변화로 한국인에 의한 민간지 발행이 허용된 이후 독자들에게 의한 최초의 신문 불매운동은 1922년 2월초에 벌어진 『동아일보』 불매동맹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에 개화기부터 정계의 거물로 활약했던 윤양 김윤식의 장례식을 사회장으로 치르는 문제를 둘러싸고 청년단체들이 반대하면서 이 과정에서 김윤식 사회장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동아일보』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개되었다. 『매일신보』 1922년 2월 3일자 3면을 보면 고김윤식사회장반대회의가 2월 1일 두 번째 대중강연회를 개최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동아일보』 비매동맹회가 결성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비매동맹회의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인용, 보도하고 있다.

#### 결의문

— 동아일보의 사장, 주간, 편집장 등은 귀족계급, 자본계급과 기타 간악한 지식매매자계급과 결탁하여 민중의 의사에서 출처 안이한 하등의 사회적 이유가 없는 고김윤식사회장이란 것을 전단적(專斷的)으로 결정한 것

— 동아일보는 이천만민중의 표현기관이라고 자임하면서 민중의 여론을 극도로 무시하고 소위 사회장이란 것을 종종의 오언궤변(敎言詭辯)등으로써 단체장의 의미로 미봉기만하는 것

— 동아일보 송진우는 의주 대표자에게 대하여 “이 경성에서 우리 칠십여명 위원을 제헌 외에 여론을 이르킬 능력을 가진 자가 누가 있느냐”고 한 것

— 이상 모든 조건에 의하여 우리 민중의 인격권리침해에 대한 정벌로 그 사장 주간 편집장되는 자의 인척 사직을 불쌍하지 조선 전민중은 동아일보 구독을 거절하기로 단행할 것

이 결의문을 통해 당시의 『동아일보』 불매운동은 김윤식의 사회장 문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촉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의문에서 요구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세 항목이 모두 김윤식 사회장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동아일보』가 여론을 오도하여 정당성도 없는 김윤식사회장을 주도하려 한다면 서 간부들의 사직을 요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독 거부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앞서 1922년 1월 21일 개화기 한국 정계의 주요 인물 중 한사람이었던 윤양 김윤식이 죽었다. 그의 죽음에 대해 『동아일보』는 1월 23일자에 ‘윤양선생의 장서(長逝)를 도(悼)하노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여 김윤식을 ‘조선의 문장, 사회의 원로’라고 평하면서 “민중을 위하는 일념이 절절부지(切切不止)함을 모(慕)하고 그 사(死)를 도(悼)함에 한이 무(無)하다”라고 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였다.

바로 뒤이어 1월 24일에는 언론계,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모여 김윤식의 장례를 2월 4일 사회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하였다. 김윤식의 죽음은 “사회로서는 큰 원로를 잃고 학계로서는 큰 문장을 잃어 사회 각 계급에서는 애도 추모하는 심히 깊어 사회장으로 치른다”는 것이었다(『동아일보』 1922. 1. 24).

첫번째 모임에서 사회장위원회의 집행부가 구성되었다. 위원장에는 박영효가 부위원장에는 이용직, 실행위원으로는 윤덕영자, 이범승, 이상협, 유인중, 장두현, 유진태, 유성준, 최진, 고원훈, 장덕수 등 10인이 선정되었다(『매일신보』 1922. 1. 25). 이 중 위원장 박영효는 당시는 퇴사한 이후였지만 창간 당시 『동아일보』 사장이었고 장덕수는 당시 부사장, 이상협은 상무 겸 편집국장, 장두현은 취재역이었다(동아일보사 편, 1975). 『동아일보』의 관계자들이 사회장위원회의 위원장 이하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동아일보』는 1월 26일자 사설란에 ‘윤양선생 장송(葬送)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였다. 이 사설을 통하여 『동아일보』는 “세익스피어는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는 영국인 카알라일의 말을 인용하면서 김윤식이 과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 커다란 기여를

한만큼 그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사회장으로 치르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역설하였다. 뒤이어 사회장위원회는 각계의 인사들을 참여시켜 집행위원으로는 70여 명의 인사가 선정되었으며 집행을 위한 각 분과가 구성되는 등(『매일신보』 1922. 1. 29)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바로 뒤이어 이 사회장에 대한 반대 운동이 고개를 들었다. 사회장이 확정되고 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1월 27일과 28일 양일간 모여서 토의한 결과 각계 80여명의 인사들로 고김윤식사회장 반대회를 결성하고 집행위원으로 이상천(李相天), 박이규(朴珥圭), 노병희(盧秉熙) 등 10명을 선정하면서 바로 반대 운동에 돌입하였다. 이 모임은 김윤식은 사회장을 치러줄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며 일부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사회장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 공포하였다(『매일신보』, 1922. 1. 30).

1. 고김윤식의 장식(葬式)에 대한 사회장임을 취소할 사(事)
2. 사회장 집행위원은 그 성명을 구(具)하여 일반 사회에 사죄할 사
3. 자의의 승낙이 업시 사회장위원으로 발표된 그 당인(當人)에 대하여 직접 자임(資任)자는 특히 사죄할 사
4. 동아일보 사장은 즉시 사직할 사  
단, 전항을 이행치 못할시는 동아일보가 자임한 ‘이천만민중의 표현기관’임을 취소할 사
5. 사회장 집행위원에 참가한 각급학교 교장 각 단체 대표자는 각기직(各其職)을 사(辭)할 사
6. 1, 2, 3, 4항에 대한 행위는 동아일보 지상에 즉시 발표할 사
7. 우기(右記) 각항에 대한 이행을 즉시 당해 각기관에 대하여 본회 위원으로써 권고케 할 사  
우(右) 결의함

김윤식에 대한 사회장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면서 『동아일보』에 대

해서도 사장의 퇴진까지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반대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자 『동아일보』는 바로 다음날인 1월 31일자에서 사회장위원장이었다던 박영효의 말을 인용, 보도하는 형태로 사회장의 의미를 정리하면서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 보도를 통해 박영효는 사회장이라고 하지만 이는 전체 사회가 참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례 거행에 찬성하는 경성내 인사들만 모여서 거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컨대 국민대회라고 하더라도 전체 국민이 모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김윤식 사회장에 대한 반대운동은 집요하였다. 『매일신보』는 2월 1일자에서 ‘운양선생 사회장 문제’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김윤식의 사회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주저하는 행사를 취소하고 반대측은 그동안의 지나친 언동들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얼핏보면 양비론의 입장을 취한 것 같지만 『매일신보』의 보도 태도는 김윤식의 사회장 문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같은 2월 1일자 3면을 보면 전체 지면의 절반 정도를 관련 기사로 채우면서 반대운동의 분위기를 소상하게 전하고 있다. 관련 기사들의 제목만 보아도 ‘공분(公憤)으로 일제 쫓기’, ‘당내를 진동한 박수성(黷)’, ‘결국 취소가 양책(良策)’ 등으로 제목을 달아 사회장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유족들의 입장도 소개하고 있다. 유족들은 사회장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공연히 말들이 많아서 고인에게 누를 끼치게 되었다고 하면서 반대측에 대해서는 근거가 불확실한 발언들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사회장반대회는 2월 1일 오후에 제2차 반대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 강연회는 박이규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신일용(辛日鎬), 박광희(朴廣熙), 김태규(金泰奎), 이지호(李志鎬) 등이 연사로 나섰다(『매일신보』 1922. 2. 3). 한편 『조선일보』도 2월 3일자 지면에 무산자동지회<sup>2)</sup> 위원인 김한기가 쓴 ‘고 김윤식씨 사회장 반대 즘음에 이 문(文)을 일반 민중에 보내다’라는 제목의

2) 이 단체는 1922년 1월 19일 서울에서 윤덕병(尹德炳) 등 19인의 발기로 결성된 사회주의 계열의 사상 단체이다. 결성된 지 두달 정도 만에 신인동맹회와 합병하여 무산자동맹회가 되었다(김준엽·김창순, 1986b, 33-35쪽).

글을 게재하였다. 이 글에서 김한기는 김윤식의 사회장을 둘러싼 논란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중은 한없는 정신상의 위압을 받았으며 한없는 생명의 손상을 받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정진석 편, 1998, 532-534쪽). 민족주의 계열의 학생단체인 조선학생대회(김준엽·김창순, 1986b, 187쪽)도 1월 27일 모임을 열고 사회장에 대한 반대를 선언하였다(『매일신보』 1922. 2. 3)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자 사회장위원회는 2월 1일 오후에 회의를 개최하여 사회장 폐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동아일보』 1922. 2. 3).

## 2) 불매운동의 배경

이처럼 『동아일보』 불매운동이 전개되었던 배경에는 당시 청년단체들의 이념 투쟁이 자리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김윤식의 사회장문제가 쟁점이 되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1920년대 초기 민족운동 진영에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경쟁과 대립이 배경 요인이 되었다는 말이다<sup>3)</sup>.

3·1운동 이후 일제의 식민정책이 바뀌면서 각종 사회단체들도 붓물을 이루듯 양산되었다. 1920년 말에 985개이던 사회단체의 수가 1921년에는 2,989개, 1922년 9월에는 3,002개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 단체들 중에서 다수를 차지한 것은 단연 청년단체였다. 이처럼 단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서 난립하게 되자 자연 이를 하나의 규율에 의해 움직이는 단일 조직체로 묶으려는 움직임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20년 6월 28일에 장덕수, 오상근, 박일병, 장도빈 등 50명이 모여 ‘조선청년회연합기성회’를 발기하기에 이르렀다(김준엽·김창순, 1986b, 100-103쪽).

이 조선청년회연합회는 당시 커다란 사회적 기대 속에 출범하게 되었다. 이돈화는 『개벽』에 실린 글(1921. 1월, 33-39쪽)에서 연합회가 출범한 사실을 일컬어 ‘희소식 중 희소식’, ‘조선 유사 이래 초유의 사(事)’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커다란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연합회에 대하여 소아(小我)

---

3) 당시 양 진영의 대립과 갈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obinson (1988/1990)을 참조하기 바람.



를 버리고 대아(大我)를 볼 것과, 각 단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 그리고 중앙집중권을 튼튼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1920년대 초반의 청년운동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이 두 개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다. 애당초 한국 청년운동의 주류는 민족주의였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 이후 전세계적으로 사회주의의 기반이 확대되면서 한국 사회에도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었다. 당시 『개벽』은 이러한 사상적 조류를 설명하면서 사회주의의 유입을 크게 동으로부터 유래된 것과 북으로부터 유래된 것의 두 갈래로 설명하였다. 동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란 일본의 영향 하에 일본의 각종 사상 서적을 통해 유입된 것을 말하며 북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란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 세력을 통해 유입된 것을 말한다. 1918년 6월 이동휘 등이 하바로브스크에서 한인사회당을 조직한 것을 시초로 하여 1920년에는 상해로 내려와 한인사회혁명당 명의로 국제공산당에 참여하고 1921년에는 고려공산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다(『개벽』, 1924년 1월, 3-4쪽). 이러한 움직임들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싹트게 되었던 것이다.

이 양대 세력이 조선청년연합회를 결성하여 초기에는 협조를 바라는 사회적 여망에 따라 별 무리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념적 차이와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경쟁과 갈등이 항상 잠재되어 있었다. 양대 세력은 민족운동의 방법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냈다. 사회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노선을 취하면서 민족주의자들이 추진하는 각종 문화운동 즉 민립대학 건설운동과 물산장려운동 등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Robinson, 1988/1990, 167-210쪽).

양대 세력이 직접 충돌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서울청년회 내부의 문제였다. 이 단체는 조선청년회연합기성회보다 늦게 1921년 1월 27일에 출범한 단체이다. 당시 서울의 청년단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조선청년연합회기성회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우선 서울의 단체를 통해 가맹 자격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출범 초기에는 사상적 경향성이 뚜렷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단체 내에서도 사회

주의 사상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서울청년회 내부에서 장덕수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개량주의파와 김사국(金思國), 김한(金翰)을 중심으로 하는 좌경파의 대립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김준엽·김창순, 1986b, 44쪽).

이러한 바탕 위에서 몇 개의 사건이 터지면서 내부 균열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불거져 나온 것은 1921년의 이른바 ‘사기 공산당 사건’이었다. 이는 이동휘를 중심으로 한 상해의 공산주의 세력이 국내의 거점 확보를 위해 국내 세력과 연계를 모색하던 중에 터져 나온 사건이었다. 그 과정에서 장덕수가 포섭 대상으로 떠올랐으며 1921년 5월경 적지 않은 활동 자금이 장덕수에게 전해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 자금이 공산주의 활동 이외의 일에 소비되었다고 하여 말썽이 되었던 사건이다. 당시 금액도 4만원 혹은 8만원이라는 설이 있으며 이 돈이 장덕수를 비롯하여 최팔용, 오상근 등 9인의 인사에게 전해져 유용되었다는 것이다. 이 9인의 인사들은 모두 조선청년회연합회와 조선노동공제회의 간부급이었다. 당시 사회에는 이들이 이 돈으로 지방 각지에서 순회강연을 개최하였으며 기관지 『아성』(我聲)을 발행하였고 그 외에도 각자의 세력 확장을 위한 자금으로 썼다는 세인의 비난이 자자하였다고 한다(김준엽·김창순, 1986a, 235쪽).

당사자들 중에서도 비난의 표적이 되었던 장덕수는 당시 이에 대해 “그런 자금을 수령한 일이 없으며 자금 사용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였다고 한다(이경남, 1981, 196쪽). 하지만 이광수와 유광렬 등의 회고에 의하면 당시 소문이 과장, 왜곡된 측면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장덕수가 이 돈을 받은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었던 것 같다(동아일보사 편, 1975, 184쪽).

이러한 논란의 와중에서 김윤식사회장문제가 불거졌던 것이다. 이 김윤식사회장문제는 표면적으로는 김윤식의 과거 친일 경력이 문제가 되어 사회장으로 할만한 근거가 있느냐는 점이 논란이 되었지만 이면에는 사회주의 계열의 인사들이 장덕수 일파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자리하고 있었다(김준엽·김창순, 1986b, 108-109쪽). 기회를 엿보던 사회주의 세력의 입장에서는 좋은 소재를 만난 셈이었다.

김윤식사회장반대운동은 서울청년회와 조선노동공제회 등 사회주의 계

열의 청년단체들이 주도하였다. 조선노동공제회는 1920년 4월 11일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을 선언한 노동단체로서 단체의 성격이 사회주의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구성원 중에는 사회주의 계열의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김준엽·김창순, 1986b, 60-63쪽). 반대회의 집행위원은 전체 10명이지만 그 중 전술한 3명만 『매일신보』 지면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나머지 인사들을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이들 3인의 인사들과 반대 강연회에 연사로 나섰던 사람들을 통해 당시의 주도 세력 구성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중 박이규<sup>4)</sup>는 조선노동공제회의 초대 총간사이자 집행위원이었던 인물이며 노병회는 서울청년회계열의 인사였다. 반대 연사로 나섰던 인사들 중 신일용은 사회주의 계열의 인사였으며 박광희는 노동공제회측 인사였다(김준엽·김창순, 1986b).

이처럼 청년운동 내부의 주도권 분쟁 속에서 김윤식사회장의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장덕수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동아일보』에 대한 불매동맹이 결의되었던 것이다. 장덕수는 『동아일보』의 창간 당시부터 주관을 맡아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1922년 당시에는 부사장을 맡고 있었다. 특히 1930년대 초반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설의식의 회고에 의하면 『동아일보』라는 제호를 제안한 사람도 장덕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삼천리』, 1932년 3월호, 323쪽).

양대 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은 뒤이어 1922년 3월 1일부터 5일간 열린 조선청년연합회의 제3회 대회에서 사기공산당 사건 관계자에 대한 제명안이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논란 끝에 이 제안이 채택되지 않자 서울청년회는 동조하는 18개 지방단체를 이끌고 연합회를 탈퇴하고 말았다(김준엽·김창순, 1986b, 110쪽). 이후 서울청년회는 사기공산당 사건과 김윤식사회장 사건에 연루된 장덕수와 최팔용, 이봉수, 김명식, 오상근 등 5명을 제명 처분하

4) 박이규는 본인이 사기공산당 사건의 연루자로서 후에 서울청년회가 제명 대상자에 포함시켰던 인물이다(김준엽·김창순, 1986b, 67쪽). 그가 김윤식사회장반대회의 집행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아마도 당시 조선노동공제회의 총간사로서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였다(한국역사연구회 근현대청년운동사 연구반, 1995, 72-73쪽).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제기 민간지의 창간 직후라 할 수 있는 1922년 2월에 김윤식사회장 문제를 둘러싸고 민족 운동 진영에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내부 대립과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동아일보』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전조선청년당대회와 『동아일보』 불매운동

#### 1) 불매운동의 전개

일제기 두번째의 신문불매운동은 1923년 3월에 개최되었던 전조선청년당대회에서 청년단체들이 모여 『동아일보』에 대한 불매운동을 결의하였던 사건이다. 『매일신보』 1923년 4월 1일 3면을 보면 ‘동아일보 비매동맹회’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청년당대회에서 결의안 작성

집행위원 삼십명까지 선출히

전조선청년당대회(全朝鮮靑年黨大會)가 집회금지(集會禁止)를 당한후에 교섭위원을 선출하야 경찰당국에 질문을 하였스나 결국 다시 기회할 수가 업시 되얏슴으로 오후 네시가 지나 다시 시턴교당에 모여 이 교섭위원의 보고를 드른 후에 동아일보(東亞日報) 비매(非買) 문데가 쓰다시 이어나게 되야 일동은 동아일보 비매동맹회(同盟會)를 조직하기로 하고 동일 오후 여덟시부터 이에 대한 강연회(講演會)를 하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그 결의안(決議案)은 아리와 갖초며 집행위원(執行委員) 삼십명을 선출하얏는데 그 결의안과밧 씨명은 아리와 갖더라

결의안

이천만 민중의 표현기관이라 자칭대호(大呼)하고 발기되야 총연앙모(龍戀仰慕)하게된 동아일보는 사실로 민중의 이목이 되어 전체로 신임홀만치 자처케 되

는 기간(其間)에 내막으로는 기(幾)개인의 수완으로 신사벌(闕)자본급의 농락(弄絡)기관이 되어 대세에 순응되는 현대 오인의 각오와 정신을 마비하는 정략으로 사회장이나 비행사환영이나 재외동포위문회등을 고창(高唱)하여 일반의 여론을 무시하며 기타에 심지어 사기공산당이라는 비판까지 사실로 인정하게된 동아일보에 대하여 자칭 2천만 민중의 표현기관이라함을 취소하고 편집주요간부가 퇴직하여 오인의 갈망숙회(渴望宿希)하든 본의적 공정한 언론기관이 되기까지 비매동맹을 시행할 사

대정12년 3월 30일  
동아일보비매동맹회

이 기사를 통해 전국의 청년단체들이 모였던 전조선청년대회에서 『동아일보』를 성토하면서 2천만 민중의 표현기관이라는 표현을 취소하고 간부들을 퇴진시킬 것을 요구하고 이 요구 조건이 수용되어 공정한 언론으로 거듭날 때까지 『동아일보』에 대한 비매동맹을 결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때에 비매동맹회의 집행위원으로 선정된 30명의 명단과 소속 단체를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일 단체로서는 서울청년회 소속 인사가 가장 많으며 그밖에는 각 지역 청년단체 대표들이 고르게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동아일보』 비매동맹을 결의하고는 이를 선전하기 위한 대중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매일신보』 1923년 4월 1일자는 이 소식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동일) 오후 여덟시부터 동아일보비매동맹회에서는 부내 견지동에 잇는 시천교당에서 강연회를 열었는데 텅중은 약 팔백여명이었으며 당각되미 이종천(李鐘天)씨의 사회로 한신교(韓愼教), 김행(金行), 이견익(李堅益), 이낙영(李樂永), 정호석(鄭浩錫) 등 제씨가 동아일보에 대한 불공평과 불성의한 레를 들어 열렬한 웅변이 있슨 후 열시가 지나 폐회하였더라

5) 비매동맹을 결의하였던 1923년 3월 30일을 말한다.

<표 1> 전조선청년당대회의 『동아일보』 비매동맹 집행위원

성명	소속단체	성명	소속단체
韓慎教	서울청년회	金弼愛	김해여자청년회
安 浚	서울청년회	奇石虎	불교청년회
金裕寅	서울청년회	張赤波(日煥)	복성회
金演植	서울청년회	金鍾漢	창원청년회
印東哲	김해청년회	金圭烈	개인참가(전북장수)
金知泰	북청청년회	金裕昌	개인참가(충북충주)
俞龍穆	고려청년회	李堅益	개인참가(함북은성)
姜永淳	진해청년회	金鴻爵	개인참가(경성)
徐千淳	淸州新任青年會	韓 海	개인참가(함북북청)
文贊斗	진해구락부	李準泰	개인참가(경성)
朴秉鎬	울산청년회	金狀烈	개인참가(전남 완도)
蔡奎淵	대한청년회	徐成達	개인참가(전북영암)
李鐘天	불교청년회	朴東浩	불명
金教英	북청청년회	金 行	"
趙容寬	群山庚申俱樂部	威演浩	"

\* 자료: 명단은 『매일신보』 1923. 4. 1. 소속 단체는 『한국공산주의운동사2』 (115-116쪽), 김준엽·김창순, 1986, 서울: 청계연구소에 나와 있는 전조선청년당대회참석자 명단과 『일제하 사회운동인명 색인집(上), (下)』 역사문제연구원 편, 1992, 서울: 여강출판사. 등의 자료들을 보고 표로 작성한 것임.

비매동맹이 결의된 바로 그날 강연회를 개최하였던 것이다. 사회자와 연사들은 이낙영과 정호석 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매동맹 집행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중 이낙영은 강연회 개최장소였던 시천교<sup>6)</sup>청년회 소속이었다(김준엽·김창순, 1986b, 115쪽).

뿐만 아니라 비매동맹회는 서울과 각 지방, 그리고 재외동포에게까지 『동아일보』 불매운동에 대한 선전활동을 펼치기로 결정하였다. 『매일신보』

6) 이는 동학에서 유래된 종교이다. 1905년 손병희가 동학의 정통을 이어 천도교로 재편하면서 이용구 등 친일세력 62명에 대한 출교 처분을 내리자 이용구는 이에 맞서 시천교(侍天教)를 창설하였다(야후백과사전, '시천교'항 참조 2003.5.23., Available: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100870&from=enc>).

1923년 4월 1일자에 의하면 3월 31일 집행위원들이 모여 이 운동의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선전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즉 각 지방의 청년단체 대표들을 지역으로 돌아가 선전활동을 펼치고 재외동포위문회 등에서도 선전활동을 벌이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 조선청년당대회는 1923년 3월 24일부터 개최하였으나 얼마 뒤인 3월 29일 일본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당시 일본 경찰이 강제 해산시킨 명분은 일본에 있는 조선인 사회주의자가 잠입한 흔적이 있고 의사진행이 보안법 제2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동명』, 1923. 4. 1). 여기서 보안법 2조란 “경찰관은 안녕질서를 보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집회 우(又)는 회중(會衆)의 운동 혹은 군집을 제한 금지함을 득(得)함”이라고 되어 있다(계훈모 편, 1979, 1264쪽). 그러나 강제 해산 이후에도 조선청년당대회는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대회를 계속하였다. 『동아일보』 비매동맹이 결의된 3월 30일 도 강제 해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 2) 불매운동의 배경

1923년 전조선청년당대회가 『동아일보』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추진했던 것은 앞에서 분석했던 김윤식사회장반대회의 불매운동과 같은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불매운동도 청년운동 진영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이다. 일제기의 경찰 자료를 보면 이 전조선청년당대회의 목적을 “서울청년회의 좌경파 김한, 김사국 등은 장덕수, 오상근을 축출하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다시 조선청년회연합회를 와해시킬 목적”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조선총독부 경무국, 1930, 123쪽). 김윤식사회장과 사기 공산당 사건을 빌미로 조선청년회연합회에서 장덕수 등을 제명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연합회를 탈퇴하고는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전조선청년당대회를 개최했다는 말이다.

서울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22개 단체의 발기(김준엽·김창순, 1986b, 113)로 1923년 2월부터 준비한 이 대회는 전국 90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개인

참가도 30명에 달했다(『동아일보』 1923. 3. 27., 3면).<sup>7)</sup> 대회는 3월 27일부터 3개의 분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제1분과는 70명의 위원이 배치되어 부인 문제, 교육 문제, 종교 문제를 토의하였으며 제2분과는 45명의 위원이 노동과 경제 문제를 다루었고 제3분과는 민족 문제, 청년회 발전 문제, 기타 사회 문제를 분담하였다.

이 중 『동아일보』 불매운동에 관한 안건은 제3분과에서 주로 토의되었다. 이 분과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13개 사항들을 결의하였다(김준엽·김창순, 1986b, 119-120쪽).

1. 『동아일보』 비매동맹을 선전할 것
2. 『동아일보』 성토 강연을 개최할 것(『동아일보』는 스스로 민족의 의사표현 기관임을 선언하고서도 근래의 동향은 전적으로 자산층의 옹호에 주력하고 있으니, 우리는 동지가 민족의 의사표시 기관임을 취소하고 현간부의 총사직에 이르기까지 비매동맹하고 성토 선전에 힘쓸 것).
3. 조선청년회연합회의 현간부 불신임을 선전할 것
4. 재외동포위원회에 관한 건
5. 소작인 문제(조선소작인상조회는 자산가를 중심으로 하여 지주 보호에 봉사하는 자이므로 이를 타도하고 순수한 소작인 구제기관을 만들 것).
6. 조선물산장려회 타파의 건.
7. 단발문제.
8. 무녀조합철폐의 건.
9. 유교진흥회 타파의 건.
10. 향교 재산의 건.
11. 아편문제.
12. 사기공산당 사건에 관한 것(장덕수, 오상근, 이봉수는 사회사업에 관여치

---

7) 참가 단체 수에 대해서는 자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총독부 경무국의 자료(1930, 123쪽)는 78개 단체라고 되어 있으며 『개벽』지(1924. 1월, 133쪽)는 100여개 단체가 참가했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김준엽과 김창순의 연구(1986b, 114쪽)는 배성룡의 회고를 토대로 하여 94개 단체 154명, 개인 참가 50여명으로 서술하고 있다.



못하게 하고 또 절교할 것).

### 13. 동척이민 철폐의 건.

결의 사항 중에서도 『동아일보』 불매운동에 관한 사항이 맨 앞에 제시되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불매운동을 펼치는 배경은 『동아일보』가 사시를 통해 스스로 민중의 표현기관을 자임하면서도 실제 활동을 보면 자산층의 옹호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민중의 표현기관이라는 슬로건을 포기하고 간부들이 총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외의 결의 내용 중에는 장덕수, 오상근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12번째 안건으로 ‘사기공산당 사건에 관한 건’에서는 ‘장덕수, 오상근, 이봉수는 사회사업에 관여치 못하게 하고 또 절교할 것’을 결의하였던 것이다. 이 중 이봉수는 사기공산당 사건에서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다(김준엽·김창순, 1986b, 44쪽).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에 참여를 봉쇄하는 것은 물론 인간적인 절교까지 결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번째 결의사항 ‘조선청년회연합회의 현 간부 불신임을 선전할 것’도 장덕수, 오상근과 관련이 있다. 당시 이 두 사람이 연합회의 간부는 아니었다. 창립 당시부터 제2기까지는 오상근은 집행위원장, 장덕수는 집행위원으로 있었으나 1922년 3월 1일부터 개최된 제3회 정기총회에서 집행부가 바뀌면서 이들은 빠졌다. 하지만 전술한 대로 이 총회에서 서울청년회가 사기공산당 사건 관련자 제명안을 제출하였다가 채택되지 않자 간부진에 대한 불신입안을 냈던 것이다(김준엽·김창순, 1986b, 104-110쪽).

원래 조선청년당대회의 계획은 이 분과회의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3월 30일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 3월 29일 일제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자 시천교당에 모여 『동아일보』 비매동맹을 결의하고 바로 그 선전 활동에 착수하기로 하는 한편 집행위원 30명을 선정하였던 것이다. 이때에 표명된 불매운동의 사유는 분과회의의 결의안에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화되었다. 김윤식사회장문제와 사기공산당 사건, 그밖에 ‘비행사환영, 재외동포위문회 등’ 『동아일보』가 벌였던 이벤트들이 포함되었던 것이다.

이중 비행사 환영이란 1922년 12월 10일 일본에 있던 한국인 비행사 안창남의 귀국을 맞아 환영 비행 행사를 벌였던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동아일보사는 그해 10월 29일부터 「안창남군고국방문비행후원회」를 조직하여 성금을 모금하였다. 재외동포위문회란 1922년 2월 동아일보사가 재외동포 위안회를 발기하여 해외동포들로 하여금 조국애를 고취하지는 취지로 그해 3월부터 모금운동을 벌였던 것을 말한다. 이 사업을 벌이면서 동아일보사는 전국 순회강연을 벌였는데 연사로는 전라도 지역은 사장 송진우가 담당하였으며 그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장덕수가 담당하였다(동아일보사 편, 1975, 200-207쪽).

이처럼 신문사들이 벌이는 이벤트는 선의의 목적을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그 밑바탕에는 신문의 상업적 기반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사회주의 계열의 청년단체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동아일보사의 태도와 사업에 비판적 태도를 갖게 되었으며 특히 그 사업에서 자신들의 공격 목표인 장덕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동아일보』를 공격 목표로 삼았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당시 『개벽』(1924년 1월호, 133쪽)도 이 조선청년당대회의 의의를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누구나 그 윤곽은 짐작하는 바와 가티, 이 청년당 대회의 개최는, 문화주의이나 사회주의이나 하는 기로에서 갈팡울팡하는 지방 청년유지에게 사회개혁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임(仍)히 이를 규합하여 조선 사회운동의 중심세력을 짓는 일면으로는, 점우점회색화하는 조선청년연합회, 또는 이 연합회를 옹호하여, 일종의 다른 세력을 짓고저 하는 동아일보, 동아일보라 함보다 동아일보에 있는 현간부의 몇 사람-이런 급에 육박코저 함이었다. 여하간 이 청년당 대회의 개최는 신생활 잡지의 선전에 다음하여 전 조선에 적지 아니한 사회적 반향을 오게 함이 되었다.

조선청년당대회의 목적이 『동아일보』와 조선청년회연합회를 압박하는데 있었다는 말이다. 특히 ‘동아일보 현 간부’란 『동아일보』와 「조선청년회연합회」 양 집단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였던 장덕수를 말하는 것이다. 장덕

수를 중심으로 한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동아일보』에 대한 불매동맹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 4. 1920년대 초반 신문불매운동의 특성과 역사적 의의

지금까지 두가지 사례를 통해 1920년대 초반 신문불매운동의 전개 과정과 그 배경을 분석해보았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불매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신문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진전시킬 자료가 전혀 없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년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불매운동을 결의한 사실은 기록을 통해 확인이 되지만 실제 구독 거부운동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밝힐 수 있는 자료는 아직까지 없다는 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단지 현재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앞의 두 사례 모두 동아일보사 간부의 퇴진을 요구하였지만 간부진의 변동은 없었다는 점이다. 동아일보사의 간부진은 1921년 9월 14일 주식회사 체제를 발족시키면서 이어 9월 15일 송진우가 제3대 사장에 취임하였으며 부사장 겸 주필에 장덕수, 상무 편집국장에 이상협, 영업국장에 홍중식이 취임하였다. 이 체제는 1924년 4월까지 그대로 지속되었다.

단 하나 이 과정에서 있었던 변동은 청년단체들의 주된 공격 목표였던 장덕수의 거취이다. 장덕수는 1923년 4월 15일 동아일보사의 부사장급 주미특파원으로 발령이 나서 도미 길에 오르게 되었다. 『동아일보사사』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동아일보사 편, 1975, 182-183쪽).

소위 소련자금 유용이라는 무근한 누명을 쓰는 사건이 일어나, 사회에 물론이분분하고 한편 신변의 위험마저 느끼게 되어 본사에서 그를 특파원 형식으로 미

국으로 보내게 되었던 것이다.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장덕수의 특파원 파견은 『동아일보』와 장덕수 개인에 대한 공격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다. 당시 장덕수에 대해 신문의 위협을 느낄만한 정황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다. 당시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했던 유광렬이 남긴 회고를 보면 『동아일보』 기자들이 구타를 당한 일도 있었으며 심지어 권총 위협을 받은 사례까지 있었다는 것이다(『개벽』 1932년 7월호, 29쪽). 따라서 핵심인물이었던 장덕수에게는 이보다 더한 여러 가지 압박과 위협이 가해졌을 것이다. 그 압박이 장덕수 개인뿐만 아니라 『동아일보』에 대해서까지 미치자 동아일보사는 그를 특파원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앞에서 분석한 두 사례를 중심으로 일제기 민간 신문의 초창기라 할 수 있는 1920년대 초반 구독자들에 의해 전개되었던 신문불매운동의 특징과 그 역사적 의의를 정리해 보기로 하자.

먼저 1922년 김윤식 사회장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동아일보』 불매운동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국 언론 사상 최초의 신문불매운동이었다고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개화기의 언론수용자운동을 분석한 채백의 연구(2002)에 의하면 개화기에는 수용자에 의한 신문불매운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1922년에 벌어진 이 신문불매운동이 최초의 불매운동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리라는 말이다.

다음으로는 1920년대 초반의 두 사례 모두 『동아일보』가 불매운동의 목표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반면 『조선일보』에 대한 불매운동 사례는 적어도 1920년대 초반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두 신문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잘 알려진 대로 『동아일보』는 민족 진영에 허용한다는 명분으로 창간되었으며 『조선일보』는 친일세력에 의해 창간된 신문이다. 창간과 함께 『동아일보』는 스스로도 ‘조선민중의 표현기관’을 지향한다는 것을 사시로 내걸었다(김민환, 1996 ; 최민지, 1978). 이는 『동아일보』가 다른 신문에 비해 당시

사회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여러 가지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리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동이 적어도 주관적 차원에서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수용자들의 반발이 불매운동이라는 형태로까지 나타났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청년단체들이 불매운동을 결의하면서 동아일보사 간부의 퇴진이나 ‘민중의 표현기관’이라는 슬로건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 사실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준다고 하겠다.

세번째 특징으로는 사회주의 청년단체들이 신문 불매운동을 주도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당시의 신문 독자층은 아무래도 문자해독능력과 경제적인 능력을 함께 갖춘 지식인층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당시 청년운동 진영에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간에 갈등이 벌어지면서 사회주의 세력에 의해 『동아일보』에 대한 불매운동이 펼쳐졌던 것이다.

이 사회주의 청년들 중 상당 수는 일본 유학생 출신이었다. 초창기 사회주의 운동은 이 유학생 출신들이 주도하였다. 불매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사국이나 주된 공격 목표가 되었던 장덕수도 일본 유학생 출신이었다. 사회주의 청년들은 종래의 단순한 민족주의 운동만으로는 민족해방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김준엽·김창순, 1986b, 29쪽). 이러한 청년인사들이 귀국하여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면서 민족주의 세력 및 이들을 뒷받침하던 『동아일보』를 공격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동아일보』에 대한 불매운동이 펼쳐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신문의 논조나 운영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불매운동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배경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이는 외국의 사례를 보고서 착안하였거나 혹은 다른 분야에서 상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시도하였을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초창기 사회주의권 인사들 중 상당수는 일본 유학생 출신이다. 이들이 일본에서의 경험을 통해 배웠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본에서 신문에 대한 불매운동에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인이 안 된다. 일본의 신문사에 관한

통사적 연구(예컨대 春原昭彦, 1969; 村上直之, 1995; 山本文雄, 1970)나 근대 일본의 신문 독자층에 관한 고전적 연구인 山本武利(1987)의 연구 등에서도 독자들의 신문불매운동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국내의 시장에서 다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1910년대부터 나타났던 것 같다. 1910년대 발행되었던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를 보면 1915년에는 재미 중국인이 일본 상품에 대하여 벌였던 불매운동(1915. 3. 2과 3. 11)과 중국 주요 도시의 상인들이 벌였던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소개되고 있다. 이어 1918년 4월 26일자를 보면 평양 부근 겸이포(兼二浦)에서 특정 요리점을 상대로 불매운동이 벌어졌다는 사례가 기사화되고 있다. 1920년 11월 16일자에는 평양의 포목상들이 일본 상인들에 대한 비매동맹을 결의하고 실행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1910년대 후반부터 시장의 다른 부문에서는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이 현상들을 직접, 간접으로 보면서 신문의 불매운동을 착안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1920년대부터 신문을 상품으로 보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신문을 상품으로 보았기에 소비자로서 구매를 거부함으로써 그 경영진에게 타격을 주자는 인식들이 생겨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잡지의 언론 비평을 분석한 박용규의 연구(1995)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이 연구에 의하면 1920년대 중반까지 잡지들의 언론 비평은 신문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상품화 경향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언론의 상품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있었기에 소비자로서 불매운동이라는 형태가 가능했으리라는 말이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일제 시대 민간지의 초창기부터 구독자 집단에 의한 신문불매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적극적인 수용자로서의 권리 의식이 신문 발전의 초창기부터 존재해 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수용자들의 권리 의식과 이에 기반한 수용자 운동의 역사적 뿌리가 매우 깊고 오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시대일보』,  
 『개벽』, 『삼천리』, 『동명』.
- 계훈모 (1979). 『한국언론연표1』. 서울: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 김기태 (1991). 신문독자운동사례연구. 『저널리즘』 봄, 230-251.
- 김기태 (1994). 한국의 언론수용자운동. 한국언론연구원 편, 『언론과 수용자』 (132-244쪽). 서울: 언론연구원.
- 김민환 (1996). 『한국언론사』. 서울: 사회비평사.
- 김준엽·김창순 (1986a). 『한국공산주의운동사1』. 서울: 청계연구소.
- 김준엽·김창순 (1986b). 『한국공산주의운동사2』. 서울: 청계연구소.
- 동아일보사 편 (1975). 『동아일보사사』. 서울: 동아일보사.
- 박용규 (1995). 일제하의 언론 현실에 대한 인식과 비판. 『언론과 사회』 제 8호, 39-83.
- 배진한 (1988). 1920년대 조선·동아 두 신문의 사회경제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역사문제연구소 편 (1992). 『일제하 사회운동인명색인집(上), (下)』. 서울: 여강출판사.
- 이경남 (1981). 『설산 장덕수』. 서울: 동아일보사.
- 정진석 (1990). 『한국언론사』. 서울: 나남.
- 정진석 편 (1998). 『일제시대 민족지 압수기사 모음 II』. 서울: LG상남언론재단.
- 조선총독부 경무국 (1930). 『고등경찰관계연표』. 경성: 조선총독부 경무국.
- 채백 (1998). 한국 시민언론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전망. 부산대 언론정보연구소 편, 『21세기 미디어산업의 전망』 (269-318쪽). 서울: 한울.
- 채백 (2002). 개화기의 언론수용자운동.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8호, 305-331.
- 최민지 (1978). 『일제하 민족언론사론』. 서울: 일월서각.
- 한국역사연구회 근현대청년운동사 연구반 (1995).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서울: 풀빛.

Robinson, M. (1988). *Cultural Nationalism in Colonial Korea, 1920-1925*.

김민환 역 (1990). 『일제하 문화적 민족주의』. 서울: 나남.

山本武利 (1987). 『近代日本の新聞讀者層』. 東京: 法政大學出版部

春原昭彦 (1969). 『日本新聞通史』. 東京: 現代ジャーナリズム出版會.

村上直之 (1995). 『近代ジャーナリズムの誕生』. 東京: 岩波書店.

山本文雄 (1970). 『日本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史』. 東京: 東海大學出版會.

야후백과사전 '시천교'항(2003. 5. 23) Available: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100870&from=enc>

(최초투고 2003. 5. 25, 최종원고 제출 2003. 7. 8)



## Audience's Boycott Movement to the Korean Press in the Early 1920s

Back Chae

Professor

Dept. of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discusses on the historical origin of audience's boycott movement to the Korean press. Two historical cases of audience's boycott movement in the early 1920s were analyzed in this study. The first boycott was resolved by the counterforce to the public funeral of Yunsik Kim in February of 1922. This case can be estimated as the historical origin of audience's boycott movement in the Korean media history. The second case was carried out by the National Convention of the Youth Parties in March of 1923. The target of these two cases were The Dong-A Ilbo. And these boycott movement were caused by the conflict and competition between nationalists and socialists in the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These two parties were incompatible in the ideology and method of national independence struggle. In the course of their conflict and competition for the initiative socialist party resolved and carried out the boycott movement to The Dong-A Ilbo, because it was regarded as the advocate of the nationalist party.

**Keyword:** audience movement, boycott movement, media history, audience